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 4 | 제159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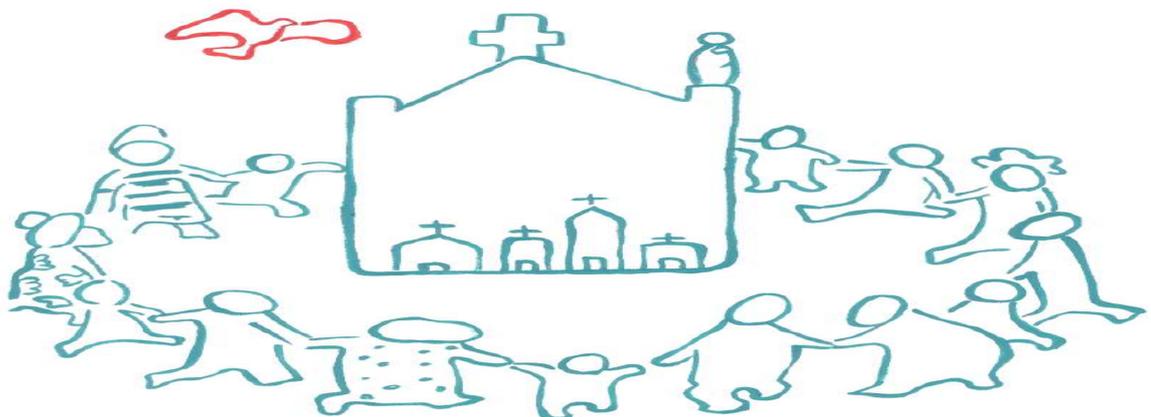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복음 나누기

## 주님 수난 성지주일 (4월 10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루카 19,28-40)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8 예수님께서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29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30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31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 32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33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34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5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36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38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39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40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루카 19,31)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루카 19,36)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우리 내면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깔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요청을 우리가 듣는 것일까요? 둘 다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요청을 듣는 것이 보다 깊고 근본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지극한 수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을까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고 행복해지는 과정은 지극한 희생과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이런 역설을 깨닫고 수용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라는 고 최민순 신부님의 청원이 기도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와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길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응원과 사랑의 기도를 깔아주면 좋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복음 나누기

### 주님 부활 대축일(4월 17일)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20,1-9)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다." (요한 20,4)

나는 주님의 부르심과 신앙의 요청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렸던 두 제자처럼 절박하고 재빠르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 믿었다." (요한 20,8)

보고야 믿는 미성숙한 믿음보다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기가 엄마를 믿고 그 품으로 파고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느낀 적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주님의 부활을 닮은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렸지만 이는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승의 시신에 대한 인간적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인간적 걱정은 주님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야 하듯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과 주님 부활에 대한 관심보다 나의 인간적 기대와 요구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간적 기대와 요구에 대한 관심보다 주님과 주님 부활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늘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과 주님 부활에 대해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함께하는 소공동체

## 산청성당 최고의 반 "단성 2반"

어머니의 산 지리산,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군상의 산들과 수많은 계곡들이 흘러 남강을 만나고 낙동강이 되어 바다를 향합니다. 푸른 하늘과 구름을 담아 흐르는 그 강을 내려다보며, 선녀의 치마폭이 내려앉은 모양의 석대산에 단성반 마을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 서쪽으로는 모태인 단성 1반이 있고, 동쪽 산자락의 수산마을과 석대마을을 합쳐 약 7년 전 단성2반으로 분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도 모자라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두 마을 모두 귀촌하신 분들입니다. 70대 세 부부, 60대 네 부부, 얼마 전 전입하신 자매님 한 분, 그리고 50대 두 부부가 대 식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54차 마지막 반모임을 가진 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분가 후 6년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위암 선고 받은 일과 무려 다섯 분의 자매님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연쇄적으로 다리를 다치신 일, 집이 절반이 타버린 화재사고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도 극복하시고 다리도 다 나왔습니다. 물론 화재가 난 집도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반원들이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 식구가 된 것처럼 가까워진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좋은 일이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성지 순례를 비롯해서 매월 각 가정에서 갖는 반모임의 복음나누기 시간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들과 행복했던 일들을 복음 말씀 안에서 진솔하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겸손과 순명은 세월의 시간과 어찌 그렇게 닳았을까요. 칠손의 형제님과 자매님의 신앙생활은 우리 반원들의 삶을 변화게 하였고, 그 속에서 겸손과 순명의 마음은 무르익어갔습니다.

비록 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신앙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욱 더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 성당에서 지금 성당까지 연령회를 짊어지고 가시는 '아오스딩 연령회장님', 자애로움으로 반을 이끌어 주시는 '안젤라 반장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고서도 슬기롭게 본당을 이끄시는 '분도 본당 회장님' 을 비롯한 '반원들' 모두 한결같이 보석 같으신 분들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로 새로 단장한 성전 안으로 따스한 햇볕이 무지갯빛으로 아롱거립니다. 우리는 이 성당에서 이 마을에서 남은 생을 주님 안에서 반원들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하게 살아 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소공동체 역할배분 ③

#### ◆ 선교담당자의 역할

선교담당자는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소공동체 선교현황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선교담당자는 "이번 중 저희 소공동체에 새롭게 전입된 신자는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은 냉담자이고, 한 분은 외딴교우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냉담자 회두 및 가정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 ① 월간/주간 별 구역.반 전출입 상황을 본당 사무실과 연락해 메모해 두거나, 반장에게 보고합니다.
- ② 구역.반 냉담자와 외딴교우 현황도 수시로 메모해, 가정방문 계획을 수립해 봅니다.
- ③ 구역.반 내 입교권면 활동을 수립한다. 본당 입교시기, 세례식 일자를 파악해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 ④ 역 주변, 공원 등에서 가두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 ⑤ 소공동체 선교일지를 따로 작성해둡니다.
- ⑥ 복음나누기 6단계의 활동 나눔 시, 각종 선교활동을 구성원들과 함께 세워볼 수 있습니다.

#### ◆ 회계담당자의 역할

회계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말씀살기' 에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회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담당자는 "이번 주에 마리아 자매님의 둘째 아들이 본당에서 혼배를 합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선물 구입을 위해 약간의 회비를 각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의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소공동체 모임의 회비가 있다면 회비를 관리하고, 모임의 필요 시 예산을 세워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말씀살기' 활동 나눔 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구성원들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밖에 구성원들의 축일, 경조사 등에 필요한 선물비를 책정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